



정철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육망 가득찬 고기 몸  
벗어나는 것이 열반”  
8면

#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아함경〉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집착을 버리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18호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 서울 도심 템플스테이서 ‘행복여행’을

서울시·문화사업단, 12월 1~7일 ‘템플스테이 WEEK’

서울 도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돌아오는 2015년을 준비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서울시(시장 박원순)은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2014 서울 템플스테이 WEEK’를 개최한다.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주간은 서울 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양한 전통문화와 사찰음식,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WEEK’는 서울시의 슬로건인 ‘함께 서울’에 발맞춰 템플스테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 전통불교문화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에도 ‘전통사찰 WEEK’를 열고 시내 53개 전통사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주간 행사는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의 문턱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WEEK’는 당일형과 1박2일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주간 동안에는 목동 국제선센터의 ‘숨 쉴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우면산 관문사의 ‘참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 △금선사의 ‘산사에서 길을 묻다’ △길상사의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묘각사의 ‘내 마음 내려놓기’ △조계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관사의 ‘마음을 다스리는 템플스테이’ △봉은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화계사 ‘지금 여기 깨어있다는 것’ 등의 주제의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특히 진관사는 12월 1~2일 템플스테이 참가자에 한해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템플스테이’를 열고 사찰음식의 정신과 맛을 참가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템플스테이 WEEK’ 참가자에 한해 행복한 내년을 위한 기원을 담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레터(Time Letter) 이벤트도 진행된다.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쓰고

〈표〉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워크 참여 사찰 (가나다 순)

사찰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	운영대상	외국어
관문사	참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국제선센터	숨 쉴 템플스테이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금선사	산사에서 길을 묻다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길상사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묘각사	내 마음 내려놓기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가능
조계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단체	
진관사	마음을 다스리는 템플스테이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	
봉은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화계사	지금 여기 깨어있다는 것	당일템플 1박 2일 체험형	개인/단체	

조계사 등 9곳 무료 진행  
12월 4일까지 선착 접수  
타임레터 등 이벤트 풍성  
직장인·고3 대상 행사도

‘전통사찰 WEEK’ 이어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한 달부터 최대 1년 이내까지 요청한 날짜에 받아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엽서와 함께 기념품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이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기간은 당일 혹은 1박 2일 중 선택 가능하다.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WEEK’에 앞서 오는 11월 22일(토), 서울시민청에서는 사전 홍보 부스를 열어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종로구 우정국로 56)에서 아름다운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고 ‘템플스테이 WEEK’ 참여를 독려하는 소통과 힐링의 장 ‘마음으로 통해요(스님과의 토크! 토크! Talk!)’를 연다. 일상에 지친 직장인, 새 출발을 준비하는 수험생, 특별한 날들을 원하는 가족 등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스님과의 오감 명상, 차담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으로 통해요’는 서울 시민청 부스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형 미항사 괘불 서울에 나투신 뜻  
대형 괘불이 전시장 47층의 벽을 꼭 채웠다. 해남 미항사 괘불(보물 1342호) 모사도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시됐다.

높이 1170cm, 폭 486cm의 초대형 괘불을 1대 1 크기로 재현한 작품은 도심에서 미항사 괘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시를 주최한 미항사(주지 금강)는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예불을 올리고, 문화 공연도 갖는 등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항사 괘불 외에도 천불도 25점, 포벽나한도 13점, 단청문양도 114점 등 153여점의 작품도 함께 선보여 조선 후기 단청과 벽화들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11월 11일 이운식을 갖고 미항사로 돌아간 괘불은 앞으로 꾸준히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모사도로 범위를 여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미항사 괘불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교역적 스님과 개그맨 전유성 씨, 외국인 등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글=정혜숙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南北불교, 日약탈 문화재 반환 나서

문화재제자리찾기 조정 신청에... 조물련 성명 발표

日법원, ‘자격 없음’ 기각  
“국제사회 문제 제기할 것”

일제시대 수탈된 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을 돌려달라는 남북 불교계가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공동대표 해문)는 11월 5일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진행된 조정 신청에서 ‘조정 불성립’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하며 일본의 해명거부에 대해 국제박물관협회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및 제

소할 것을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8월, 도쿄국립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등 일제 강점기에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34점에 대한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낸 바 있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불교계도 동참했다. 북한은 조선불교도연맹 성명을 통해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는 우리 민족의 권리이고 국제법적 의무”라며,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고종황제 투구’ 등 약탈문화재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과 북의 불교계는 단합된 힘으로 일제가 약탈해간 모든 문화재를 찾기 위한 공동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문 스님은 “국제박물관협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 종교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

4일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발족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와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는 10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조직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로터스월드, 불교생태연구소 등을 비롯해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청교초보전연대, 푸른아시아, 피스빌리지네트워크 등 종교·일반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박경조 前대한성공회 주교, 인명진 목사, 김중철 녹색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오늘날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것”이라며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조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기후변화의 근원은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에 있다는 글을 접하고, 성직자로서 환경운동에 나서게 됐다”며 “불교의 생명관과 가치관 등 종교 안에 있는 환경에 대한 가르침을 살려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서명과 함께 컨퍼런스 원만 개최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한국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박경조 前대한성공회 주교, 인명진 목사, 김중철 녹색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1018호 INDEX

시방세계 5  
홍법사 ‘美 포교 현황과 과제’ 토론회



화엄만다라 16·17  
금강경독송회



국어교사인 강기혜와 다솔스님, 신문사 기자인 자운이와 혜강스님, 이들이 펼치는 사랑은 무명한 수채화 같다.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고 애절할 수 있구나!

## 너무도 그리웠던 그 소설! 남지심의 『솔바람 물결소리』 『연꽃을 피운 돌』 출간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행복한 선물!

출간 기념 ‘서평’ 이벤트

『솔바람 물결소리』 『연꽃을 피운 돌』을 읽은 독자님들의 서평을 기다립니다. 선정된 분들은 ‘도서출판 매기꾼’의 서평단이 되어 매기꾼에서 출간한 모든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매기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baistaff@naver.com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70-8880-8202



연꽃을 피운 돌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솔바람 물결소리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